



아사미 작품



정현주 작품



진상민 작품

세계 3대 디자인상 그랜드슬램 달성

대전대 디자인학부 학생들, 각종 공모전 휩쓸어

대전대학교(총장 이천수) 디자인학부 학생들이 각종 공모전에서 좋은 성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9월6일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고소한 자연'이라는 포스터로 추천디자인 상을 수상한 박종희, 홍석준 학생을 비롯하여 약 30명의 학생들은 각종 공모전에서 크고

작은 상을 수상했다. 또한 김창덕, 우승균, 이성휘 학생은 현재 심사 중인 ied dot design award winner 2007에서 입상권에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대 디자인학부를 졸업한 김창덕, 홍영기 학생은 '모두의 화장실'이란 주제로 세계3대 디자인상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도 했다.

대전대학교 디자인학부 관계자는 "디자인학

부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우수한 성적에 대해 우수한 교수진의 지도와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학생들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라며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디자인어를 꿈꾸는 우수한 고등학생들이 대전대에 많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80

나를 잊지 않은 이가 너를 돌보아주리라



리효중 포천한시사 대표

성재원은 남명 조식을 비롯해 성운(成運), 서경덕, 이지함 등 당대의 문인들과 친교를 맺었다.

1557년, 조식은 친구인 성운(成運)을 만나기 위해 보은으로 향했다. 성운은 형이 을사사화로 화를 입자 속리산으로 내려가 은거하고 있었는데, 그 후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성운을 만나기 위해 보은으로 간 조식은 당시 보은현감으로 있던 성재원을 처음 만났다. 이들은 서로 통하는 바가 있어 처음 만났는데도 곧바로 친구가 되었다.

그리하여 조식, 성재원, 성운은 속리산 계곡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학문을 토론하고, 시를 지어 읊었다. 이윽고 조식이 속리산을 떠나려 하자 성재원이 술자리를 베풀어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였다.

"그대와 내가 모두 중흥이 되어 멀리 떨어진 고을에 살고 있으니 어찌 다시 만나기를 기약 할꼬?"

그들은 못내 아쉬운 듯 이듬해 추석이 합천 가야산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때가 되면 성재원의 임기가 끝나므로 고향으로 가는 길에 가야산에서 조식을 만나기로 약속한 것이다.

이듬해 추석이 다가오자 조식은 1년 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합천 해인사로 떠나려 하였다. 마침 큰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여러 제자와 가족들이 만류하고 나섰다. 하지만 조식은 장대비를 무릅쓰고 길을 떠났다.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조박 이들을 걸어 해인사에 도착했다. 성재원은 1년 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해인사에 도착해 있었다. 그 역시 빗속을 뚫고 보은에서 합천까지 6백 리 길을 달려온 것이었다.

조식(曹植)은 영남에서 퇴계와 생벽을 이루는 대학자로 중종, 명종, 선조때까지 삼조(三朝)에서 여러 벼슬을 내리고 불

러으나 끝내 나가지 않고 학문에만 힘써 많은 학자를 길러냈다. 사후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정(文貞)의 시호를 내렸다. 벼슬을 내리는 조정의 부름에는 응하지 않은 그가 뜻이 통하는 친구와의 약속(의리)만은 꼭 지킨 것이다.

성재원이 일찍이 전국의 명산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청주에 들른 적이 있었다. 당시 청주목사가 그의 친구였는데, 친구가 찾아오자 기생 춘절(春節)을 불러 모시도록 했다. 성재원은 기생과 함께 산을 찾아다니며 놀았는데,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도 한 번도 기생을 범하지 않았다.

그는 산을 돌아다니면서 산수가 맑고 좋은 곳이면 곧 그림으로 그리거나 시를 지어 화폭에 썼는데, 산을 나올 때는 그림이 수십 폭에 이르렀다. 성재원은 마침내 청주를 떠나면서 기생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범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나와 동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관리들이 너를 가까이하지 않을 것이고, 기생으로서 손님이 없으면 생계를 잇기도 힘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그렸던 화폭을 줄 테니 사람들이 찾아오거든 이 화폭을 보이거라. 그러면 나를 잊지 않은 이가 너를 돌보아 줄 것이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전쟁이 끝난 후 성재원을 잘 아는 감찰사(監察使) 아무개가 청주목사와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그 이야기를 꺼냈다. 그 감찰사는 성재원 형의 손자였다. 한참 흥에 겨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문득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하였다.

"그 기생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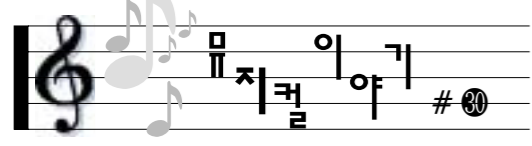
그 얘기를 들은 목사가 그 기생을 불러오라고 했다. 하지만 기생은 이미 여든 살이 넘어 있었다. 감찰사가 성재원의 친척임을 알게 된 기생은 그의 손을 잡고 울며 말하였다.

"오늘 그분의 손자를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비록 그분과 잠자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찌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 날 이후 선배는 절개를 지키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때 주신 화폭을 첩으로 만들어 이 고을을 지나는 선비들에게 보여주니 후히 대접해주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란 중에 그 화첩을 잃었으니 참으로 분한 일입니다."

성재원(成惲元): 1506년(연산군 12)~1559년(명종 14).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휘는 재원(惲元), 자는 지경(子敬), 호는 동주(東洲) 또는 소산(笑山)이다. 어릴 때부터 학문을 즐겨 유유(柳藕)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성리학을 비롯한 각종 학문에 정통하였다. 젊어서부터 전국을 방랑하며 벼들과 어울려 시를 짓고, 세속에 구애됨 없이 초야에 묻혀 살았다.

만년에 보은 현감에 천거되어 나갔으나 곧 벼슬을 버리고 돌아왔다. 그때 보은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길을 가로막았다고 한다. 이후 공주의 향리에 돌아와 은거하였다. 54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저서로 『동주유고(東洲遺稿)』가 있으며, 시호는 정린(淸憲)이다.



1930년대 뮤지컬 개요 한국의 악극(樂劇)과 뮤지컬

연극이나 영화, 혹은 TV드라마를 보면서 신파(新派)나 신파조(新派調)나 하는 말을 자주 듣고 써왔다. 신파하면 눈물을 연상하고 다소 과장된 연기를 떠올리게 되는데 1910년대부터 일본에서 유행되어 그 후 많은 관객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신파극의 영향은 오늘날에도 모든 드라마 장르에 걸쳐있다. 특히 TV 드라마나 개그 프로그램에는 다른 장르보다 신파의 정서가 더욱 많이 깔려 있다.

일본 명치시대에 발생해서 신연극 혹은 신극으로 불린 일본의 신파극이 일제치하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관객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받았다. 물론 신파극의 유입에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천황의 군대로 조선을 탄압한 일본인들이 우리 민족의 무력감을 신파의 눈물로 달래게 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의 신파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일본식 정서를 여과 없이 피상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견해도 있었다. 오늘날 멜로극적인 드라마의 경우 신파의 영향은 절대적이다. 이별의 장면이라든가 결투 장면 혹은 죽음의 장면에서 필요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거나

지나치게 울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그리고 배우가 말하는 대사에 있어서 지나친 설명부 또한 신파의 영향이다. 특히 개그맨들이 하는 과장된 몸짓이나 이상한 어투 그리고 라디오 드라마에 질게 나타났었던 변사조의 어투와 한탄, 설교 등도 모두 신파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1920년대에 서양의 리얼리즘 연극이 유입되어 자연스러운 연기를 요구하는 작품들도 공연되기는 했지만 신파의 인기를 넘어서는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1930년대에 신파적인 드라마에 가수들의 노래와 무용을 추가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서구 음악극을 모방한 악극(樂劇)이 그것이다. 뮤지컬과 유사한 형태의 연극양식으로 한국에서 최초로 공연된 음악극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 공연도중에 막간을 이용하여 변사나 빼애로 같은 출연배우들이 활판하 코미디나 만담, 가요, 춤, 노래 등을 보여주는 막간극이었는데, 이것이 의외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자 독립적인 오락물로 공연하게 되었고, 노래, 춤, 코미디 등이 연관 없이 나열되던 종래의 형태에서 벗어나 하나의 일관된 줄거

리를 갖추면서 가극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서양의 보드빌이나 뮤지컬의 형태와 유사하지만 더 명목이 좀 더 짜임새가 있었다는 점에서 한 걸음 진보된 음악극이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에 들어서 신파극이나 일종의 대중극이 전성기를 구가하는 동안 가극은 태양극장, 낙랑좌 등에 의해 더욱 드라마적으로 보인 연극양식으로 다듬어졌는데 악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악극은 1930년대 유명한 연극 공연장이었던 동양극장을 무대로 당시의 상업적인 인기극 단들이 앞을 다투어 공연하여 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악극단에는 가수들뿐만이 아니라 만담, 연극을 하는 배우들과 때에 따라서는 미술까지 곁들이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야말로 만능 예술 단체였으며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이 된 이후 1950년대까지 무대 예술을 주도해 갔다.

조선 악극단, 만도 가극단 등 대표적인 악극단에 의해 명맥이 유지되었던 악극은 1950년대 이후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TV 방송국이 개국되면서 많은 악극 멤버들이 텔레비전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서영춘, 구봉서 등 코미디언 1세대들이 바로 그



윤우영 (대전대 교수, 연출가)



제6회 포천사랑 백일장 대회 개최 (사)한국문인협회 포천시지부(지부장 이재욱)는 10월 11일 오후1시부터 포천반월아트홀 광장에서 제6회 포천사랑 백일장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초등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일반부(대학생 포함) 등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400여명이 참가했다.(사진은 이날 대회를 개최한 한국문인협회 포천시지부 관계자들)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14)

「제비울」의 효자

장단이 고향이었으나 병자호란 이후, 이동면 연곡리(제비울)에서 살았던 효자는 72세의 나이로 진사시에 응하고 송중에게 참봉 벼슬을 제수받은 「촌로 김성대(村老 金聲大)」선생이었다.

15세 때 병자호란을 당하여 노 부모를 모시고 난을 피하여 백운산 골짜기에서 살았는데 낮에는 식량을 구하려 다니고 밤이면 글을 읽었다. 「단지지효(斷指之孝)」로 아버지를 소생시킨 효자였다.

효성이 지극하여 효행에만 전념한 탓에 과거에는 늘 낙방의 고배를 마셨는데 72세 송중19년(1693년)진사시에 응했을때 송중에게 발견되어 개성 제릉(濟陵) 참봉을 제수 받았으나 부임치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였으나 능참봉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2년 뒤(1695년) 졸사하였다.

촌로 김성대 선생은 어려서부터 인품이 준수(倅어나고) 성품이 관후(너그럽고 넉넉하고)늘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으니 그 인품됨을 익히 알수 있는 대목이다. 주경야독(晝耕夜讀)으로 학문에 힘썼으니 선비의 어린 시절의 본을 보인 것이다.

특히, 효성이 지극한 사람도 하기 힘든 단지지효(斷指之孝: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병중의 부모님의 입에 넣어드려 소생시키는 효자의 마지막 효)를 몸소 실천한 인물이다. 72세 까지 공부하여 진사시(進士試)에 나아갈 만치 끈기가 있는 분이였으며 양반의 명예를 지켰던 인물이다.(서과 급제나 대과 급제를 하여 벼슬길에 나아가 조상에 대한 효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당시나 지금이나 백운계곡은 천하절경(天下絶景)으로 선비가 은거(隱居)하고자 하는 곳이며 당시는 국가에서 보호하는 보호

림으로 산림이 울창하였으며 골리수(洞利湖)가 많고 맑고 깨끗한 영평천의 발원지였다. 문곡 김수환(文谷 金壽桓)이 아들 창집(昌集) 창협(昌協)과 함께 백운산에 왔다가 주택과 전답을 마련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데 그의 부탁을 받아들여 은거지를 마련해 놓았으나 문곡(文谷)은 모함으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촌노(村老) 선생께서는 그 후손들을 위하여 돌본 중후(重厚)한 인덕(仁德)의 소유자였다.

1961년 포천 유림들은 동음사(洞陰祠)에 배향되었으며 박순, 이의건, 김수환 선생이 모셔진 옥병서원(玉屏書院)에도 배향되었다. 반드시 높은 벼슬자리만이 높은 선비의 대접을 받는게 아니라 높은 것을 보여준 바 일 것이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초대 漢詩

유도진흥(儒道振興)

聖賢教化施吾東(성현교화시오동) 士道隆興行同(사도용흥호행동) 우리 동방에는 승현의 교화를 베풀며, 사도용흥은 효를 행함과 같도다.

博學多才成美俗(박학다재성미속) 修身謹愼起良風(수신근신기양풍) 널리 배우고 많은 재주는 아름다운 풍속을 이루며, 몸을 두고 언행을 조심하는 랑풍이 일어난다.

彝倫秩序恒詩展(이륜질서항시전) 仁義綱常永久通(인의강상영구통) 이윤질서를 형시 전개하면, 인의강상은 영구하게 통하리.

國泰民安爲繫勳(국태민안위정려) 闡明講讀倍其功(천명강독배기공)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기 정려함은 열어서 밝히려 좋은 방법을 궁리함은 그 공이 배가되나니.

양기성 용연서원 원장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11월24일 오후3시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공연이 오는 11월24일 오후3시와 7시30분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 무대에서 개최된다.

이 작품은 대사 없는 무언극으로 프리마돈나를 꿈꾸던 발레리나가 비보이를 사랑하고 비보이로 통화되어 가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에스제이비보이즈(우) 관계자는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B-Boy 대회에서 우리나라 Street dance 춤꾼들이 챔피언을 차지할 정도로 춤도 한류시대를 맞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춤의 무엇이 지구촌을 열광케 하는 것일까? 그것은 분명히 이제 춤도 "한류시대"를 맞이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민족 고유의 신명나는 흥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시대

적 흐름에 부응하여 SJ B-Boyz는 기존의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던 브레이크 댄스를 극장 안으로 옮겨 오음으로써 대중과 그 문화를 더욱 다양하게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전용극장을 개관하게 되었다."며 "개관 첫 작품으로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를 기획·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의 입장료는 R석 20,000원, S석 15,000원이며 만3세이상 입장가능하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